

# 민선7기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취임

### “가장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에 혼신의 힘 다하겠다” 취임식 생략·각 부서 직원과 인사로 첫 업무 시작

김양원 전(前)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지난 6일 제48대 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김양원 부시장은 “새 희망의 민선7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전주발전의 합찬 발걸음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가 위대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어 “지난 27여 년간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 3,000여 전주시 직원들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민선7기 전주의 문화번

영과 경제성장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 출신인 김 부시장은 지난 1991년 행시35회를 합격한 후 27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행정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행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북도 투자유치과장과 투자유치국장, 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도민안전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번인사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승진, 전주시 부시장에 취임했다.

한편, 김 부시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청사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송효철 기자



김양원 전(前)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제48대 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나들이

### 전주시, 가족 유대관계 증진 위한 미술소 관람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저소득층 아동들과 함께 하는 미술소 관람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가족과의 추억을 선물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7일 전북 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그 가족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최현우 ASK? answer! 미술소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표미술사인 최현우의 공연을 통해 아동과 가족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소를 관람한 한 가족은 “꼭 보고 싶었던 공연 이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드림스타트에서 관람 하게 해주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결소 공연 관람과 문화체험 등의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이번 미술소 관람이 가족구성원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덕진구,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교육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전주시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봉사단은 지난 6일 오전 11시 구내 폐지수거 노인 120명에게 교통안전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하고 미세먼지마스크 전달 및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서 폐지수거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혹서기 폭염대비 행동 요령 수칙과 관내 지정 무더위 쉼터 안내 등 폐지수거노인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왔을 야외 활동으로 위험이 높은 폐지수거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를 1인당 60매 상당을 지원하고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이 점심을 제공하는 등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은영 사랑의울타리 회장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위태롭게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오늘 교통안전 교육과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평 덕진구청장은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폐지수거 어르신 교통교육과 안전용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랑의울타리 회원에 감사하며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동산동, 플라워 DIY 스탠드 만들기 체험

### 소소한 기쁨과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 강화 목적

동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산동주민센터는 최근 동네 복지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3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눔과 사랑의 빛을 나누는 플라워 DIY(Do It Yourself) 스탠드 만들기 체험을 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동산동주민센터와 해피엔지니어(HAD)(대표 김순주)의 협약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내 아동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등불을 밝혀줄 스

탠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체험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했다.

최현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LED등이 켜지는 순간 너무 신기해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활동이 많아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영진 동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줌

으로써 관내 아동들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고공시위 벌인 40대 “밀린 임금 지급하라”

지난 6일 오전 7시43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모(44)씨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외출에 매달린 이씨는 아파트 19층 높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사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119구조대는 이씨를 설득해 40분 만에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밀린 임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 업체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농성을 벌이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

## 25개국 재외동포, 한국 전통문화 배우다

###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 이달 28까지 재외동포 대상 풍물·판소리·도자기·비빔밥·한지 만들기 체험 등

전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과 한글학교 교육자들이 전주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배우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당이 주관하는 ‘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를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25개국 68명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아동·청소년, 19일부터 28일까지는 한글학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0일씩 총 20일에 걸쳐 두차례 진행된다.

연수에 참여하는 재외동포들은 미국, 프랑스, 중국 등 25개국에서 이번 모집공고를 보고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母國)을 방문한 이들도.

아동·청소년들은 10일간의 일정 동안 한글교육과 함께 전주한옥마을 투어를 비롯, 풍물·판소리·탈춤 교육, 도자기·비빔밥·한지 만들기 체험, 전통예절교육 등 모국

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다.

특히, 한글교육은, 전주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기존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음악과 미술, 마술, 스토리텔링,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모국어를 더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한글학교 교육자들에게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며 마당극 관람, 닥종이공예, 부채춤/한삼춤,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직무대리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를 찾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과 한국어학교 교육자들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모국을 이해하고 또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각자 나라로 돌아갈 때 전주의 훌륭한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 경찰 수사 방향은

### 범죄분석요원 투입 정확한 범행 동기 밝히는데 주력

### “차량은 범행 장소 이동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여”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에 의해 살해됐다고 판단한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실종 여고생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고생 A(16)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오후 4시54분께 강진군 한 아산으로 A양을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나온 낫손잡이·전기 이발도구에서 A양의 유전자 나온 점, A양 정밀 부검 결과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통신·탐문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오늘부터 범죄분석요원(전문 프로파일러) 6명을 투입한다. /뉴스

수사 자료와 주변인 진술 확보 내용을 바탕으로 B씨의 살해 동기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한다. B씨가 범행을 숨기려던 여러 정황도 다시 조사한다.

경찰은 A양이 살해된 장소를 산으로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그 장소에 이르렀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B씨가 A양에게 아르바이트라고 회유한 것인지, 위협을 받으며 함께 올라간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차량 안에서 A양이 탄 흔적이나 유전자 검출되지 않은 만큼, 차량은 단순히 A양을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강 수사를 다각도로 펼칠 것이다.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